

# 해외도서전 참여 · 공격적 마케팅 출판저작권 수출의 지름길



출판학회(회장 이정준) 주최의 출판정책 라운드테이블이 지난 4월 22일 인권위원회 강당에서 '출판저작권 수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은 김기태 세명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동휘 여원미디어 대표가 주제 발표를 했으며 김대원 예림당 국제기획실 실장, 김승민 그림메 대표,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이광형 국민일보 문화부 선임기자, 이건웅 차이나하우스 대표, 최정선 보림출판사 기획위원,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다음은 김동휘 대표의 주제 발표문이다.

## 해외 저작권 수출 현황과 전망

출판 산업은 한 국가의 문화적, 정신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지식 산업이며, 출판 저작권의 수출은 국가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문화 수준을 인식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 도서 시장은 약 4조 원 규모로 전체 산업 규모에서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수출에 대한 인식이나 현황은 너무나 미약하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아동 출판이 단기간에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출판인들과 작가들, 화가들, 그리고 기획 편집인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그동안 많은 외국의 책을 수입해 출판했던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한때는 외국의 책을 모방해 책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그 노후가 오늘날의 발전에 보탬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해외 출판물의 수입에만 지나치게 치중하여 결국 국내 출판사들끼리 과다

한 경쟁에 열을 올렸던 사실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이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여원미디어는 출판 초기부터 세계 시장을 내다보며 원대한 꿈을 키워왔고 그것이 오늘날의 여원미디어를 있게 하였다.

## 여원미디어의 출판 저작권 수출 현황

여원미디어는 지난 2002년부터 해외 도서전에 단독 부스를 만들어서 수출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이탈리아(볼로냐), 프랑스(파리), 영국(런던),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태국, 중국(베이징), 대만, 멕시코(과달라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케이프타운),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이집트(카이로), 아랍 에미리트(아부다비) 등 13개국의 국제 도서전에 참가했으며, 거의 대부분 도서전에 해마다 빠짐없이 부스를 열고 있다. 프랑스(몽트뢰이)도서전은 올해 처음 참가하는데, 아동물 전문 도서전이므로 대 프랑스 저작권 수출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이 같은 적극적인 국제 도서전 참여를 기반으로, 여원미디어는 지금까지 20여 개 나라에 저작권을 수출해 왔다. 일본, 대만,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독일(피셔), 프랑스(망고외 3개 출판사), 이탈리아, 미국, 이스라엘, 덴마크 등에 거의 150여 종의 책을 수출했다. 개인적으로는 독일의 피셔 출판사에 수출을 해서 큰 호응을 얻은 것을 가장 큰 성과이자 보람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올해 이탈리아 볼로냐 도서전은 그간의 노력에 대한 최대의 결실이었다. 탄탄 하이수학 동화 중 <미술관에서 만난

수학>이 라카치상을 수상하였고,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에 작년 2008년 수상에 이어 2권의 책이 연이어 수상을 한 것이다. 여원미디어의 부스에는 세계 각국의 저작권 담당자들이 몰려들었으며, 프랑스(갈리마르, 밀란 등) 영국, 미국 등지의 유수의 출판사들과의 저작권 계약 마무리 단계에 있다. 여원미디어는 아동 도서 전문 출판사로서 양적, 질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 저작권 수출 현장의 문제점

이제 여원미디어의 사례를 넘어서서 출판 산업 전반의 저작권 수출 현장을 돌아보고자 한다. 대한 출판문화 협회가 발행하는 '출판문화' 3월 호에 따르면 지난해 출판 저작권 수출입 추정치는 수입이 1만 3391종, 수출이 1300종으로, 놀랍게도 수입이 수출의 무려 10배가 넘는다. 무엇이 이런 불균형을 낳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우선, 출판사의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경영진 차원에서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부족, 국제 감각과 언어 능력을 갖춘 출판 인력의 부족, 세계 시장에 맞는 상품 개발의 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출판과 같은 문화 산업의 경우 국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의 투자가 소홀했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면, 번역 비용의 지원(여원미디어는 저작권 수출을 위한 번역 비용으로 3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이나 나아가 번역 전문가의 양성, 해외 홍보를 위한 지원(국제 도서전 참가 후원, 해외 전시 후원, 각국의 한국 대사관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등), 도서 수출 배포망의 확보와 같은 수출 인프라 구축 등이 크게 부족하다.

물론 그간의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성인물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아동 도서는 글보다 그림이 위주인 관계로 언어적 걸림돌이 덜하여 현실적으로 해외 수출에 훨씬 용이하다. 1978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작권이 수출된 한국 도서 중 만화와 아동 분야가 64.4%를 차지한다(출판문화, 2009년 3월). 정부에서 아동 도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외 수출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더라면 더 큰 성과가 있었으리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 출판 저작권 수출 활성화 방안 및 제언

앞으로 출판 저작권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다시 여원미디어의 사례로 돌아와 몇 가지 제언으로 본 발제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해외 시장에는 다른 다른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치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각 나라마다 독자들의 성향, 선호하는 도서, 유통 구조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배움터 주권인 한국출판학회



김동휘 · 여원미디어 대표

프랑스의 경우, 출판사와 유통 회사가 철저히 구별되어 있고 유통에서도 서점용 책과 마켓용 책이 별개로 출판되고 있어 출판사의 신뢰도와 파워가 없으면 유통 회사에의 접근이 힘들다. 그래서 출판사들 간의 통합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독자 성향 측면에서 프랑스는 다문화화를 즐기기 때문에 각 나라의 특징이 있는 문화 요소가 담긴 책들을 매우 선호한다. 멕시코의 경우, 초등학교 납품 도서로 선정만 되면 1종의 책이 5만~10만권씩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 아랍권의 몇몇 나라들의 경우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교육이 전무한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접근함으로써 미래의 수출 가능성을 열 수 있다. 이처럼 현지 정보 수집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출판 시장의 진입은 훨씬 더 유리해진다.

둘째, 출판사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앞서 언급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현지 도서전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원미디어의 경우 지난 8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2010년이면 각 문화권에 빠짐없이 우리의 책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여원미디어는 수억 원의 도서전 참여 비용을 투자하였으며, 기획자, 편집자, 작가들, 화가들의 국제 도서전 참관 역시 매년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도서전 참여는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홍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해외 출판사들과의 신뢰로운 관계야말로 수출의 밑거름이 된다.

셋째, 해외 시장 진출을 좀 더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 방법으로는, 문화권, 언어권별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출판, 경영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여원미디어는 현재 해외 곳곳에 현지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생산은 국내에서 하고 법인을 통해 현지에서 판매를 함으로써 이중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현지 법인이 어려우면 각국의 대형 출판사들과 연대하여 편집, 영업은 그 나라의 출판사가, 생산은 우리가 하고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갖는 방법도 있다. 여원미디어는 시범적으로 대만 링킹 출판사와 계약을 하여 현재 출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좋은 해외 투자 마케팅의 사례가 되어줄 것이다. ☺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